

'2018 전남 고교생 학술 한마당' 성료

무안군 전남여성플라자서 개최...학생 등 400여명 참여 체육활동과 집중력 간 상관관계 등 신선한 내용 돋보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해 다섯 번째를 맞은 '2018 전남 고교생 학술 한마당'이 20일 무안군 삼합읍 전남여성플라자에서 전남교육정책연구소(소장 임일택) 주최로 열렸다.

이날 학술한마당에는 전남지역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400여 명이 참여해 큰 관심을 보였다.

'전남 고교생 학술한마당'은 지난 2014년 '2014 소논문쓰기아카데미'로 전국에서 처음 시작해 매년

개최됐다.

2014년에는 인문, 사회, 자연과학 분야 총 25편이었으나 2015년 82편, 2016년 107편, 2017년 113편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총 71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해마다 참가 학생 수가 증가했으며 논문의 내용과 수준도 향상되고 있다.

이기봉 전라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마이 오른 이날 학술한마당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전남지역 고교 1, 2학년 학

생 300여 명이 완성한 인문·예체능 22편, 자연 26편, 사회 23편 총 71편의 논문이 3개의 세션별로 나누어 발표됐다. 또한 학생들이 발표한 논문은 3편의 논문집으로 엮어 참석자들에게 배부됐다.

여수화양고 오성걸·신영찬·권창수·김찬영·최준서·이성재 학생은 '체육활동과 집중력 간의 상관관계'를 고등학교 1, 2학년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일주일에 3회 이상 체육활동을 하는 학생이 56%였으며 그 중에서 체육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 82%,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43%였다.

체육활동 전후 집단별로 집중력을 테스트한 결과, 61.4%가 집중력이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적당한 운동은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또한 남양고 허람·오승원·성찬경·박신영 학생은 '난민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1학년 2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 여러 매체를 통해 난민 문제를 접했으며 난민 수용을 찬성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따라서 난민법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난민심판원제도를 만들고 심사절차를 간소화해야 하며 난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순천고 구형욱·오승준·김건우·서재우·조도현 학생은 '한반도 동남부 지역 필로티 구조 내진보강'이라는 주제로 PS와 발생기를 이용해 내진보강실험을 진행했다.

PS와 발생기 위에 건물을 고정시킨 후 10회 진동을 실험해 RPM과 붕괴한 시점을 기록하고 어느 내진보강방법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아치형 필로티 구조가 압도적인 내진보강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임일택 소장은 "논문을 읽어보니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관심주제에 따라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친구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책에서는 배우지 못한 뜻깊은 경험들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적성을 탐색하는데 이러한 경험들은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김정환 기자

강진 다도통해 세대 융합 나선다

오늘부터 이틀간 강진읍·월출산 일원서 국내 최초

차문화 프래밀리 소셜다이닝 프로그램이 강진에서 국내 최초로 열고 강진 다도를 통해 세대 융합에 나선다.

이한영전통차문화원(원장 이현정)은 목포교육지원청과 목포대학 산학협력고도화사업단 RCC센터와 함께 21일~22일 양일 간 강진읍과 월출산 일원에서 세대 간 갈등해소의 실마리를 여행과 밥상에서 찾는 세대융합 프래밀리 소셜다이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프래밀리(family)는 친구와 가족의 합성어로 '가족 같은 친구',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은 밥상 모인 말하는데 생면부지의 사람끼리 식사를 하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새로운 문화 흐름을 뜻한다.

목포교육지원청은 시범적으로 목포지역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50여 명의 신청자를 모집해 세대 간 프래밀리(family)를 구성하고 함께 강진군으로 차문화와 공동밥상을 통한 인문하여행을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박미경 원광대 교수의 차의 가치', '정미숙 박사의 조선의 가든 티파티, 이재연 강진군청 문화관광과 화예사의 다산의 원포사상으로 본 조선의 노블레스 오블리즈, 이현정 이한영전통차문화원 원장의 '차로 꿈꾸는 다양한 직업의 세계'와 '다산의 떡차 만들기', 김대호 목포대 연구교수의 '세대융합 집단 상담과 남도 맛의 비밀', 김주미



이현정 이한영전통차문화원장

한국전래놀이협회 전남지부장의 '공동체 놀이', '다산의 차의 길 걷기' 등으로 구성됐다.

이현정 이한영전통차문화원장은 "2017년 전라남도에서 시행한 차문화 역사자원조사에 따르면 강진군이 49개로 해남(36개), 순천(22), 보성(18개)에 비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강진 차문화 프래밀리 소셜다이닝이 전국적인 관광상품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상찬 목포대학교 고도화사업단장은 "대가족제도의 약화 이후 1인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등 가족다양성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안문화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프래밀리 소셜다이닝은 새로운 가족문화를 답을 수 있는 포용적이고 세대 융합적인 가족교육의 새 모델로 제시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서은홍 기자

순천대 '2018년 농업경영자과정 수료식'

순천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성치남)는 최근 농업과학교육원에서 2018년 농업경영자과정 수료식을 개최하고 총 7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순천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이론과 기술을 겸비한 전문 농업 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으로 △농산식품가공, △농산일련성유 통과리자, △6차산업화·농촌관광리더, △스마트·귀농정착 등 총 4개의 교육 과정이 25주간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성치남 총장 직무대리와 배창후 농업과학교육원장, 김봉환 전남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강성재 순천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을 비롯해 교육생과 가족, 대학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성치남 총장 직무대리의 축사, 김봉환 기술지원국장과 강성재 조합장의 격려사에 이어 수료증 수여와 함께 우수교육생



28명에 대한 상장 수여식 등이 진행됐다.

성치남 총장 직무대리는 "농업 경영자과정을 통해 지역을 선도하는 최고의 농업경영인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업이 나라의 존립기반이자 국가유지의 원동력인 만큼 농업을 첨단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순천대학교는 지난 1993년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로부터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을 위탁받아 현재까지 2256명의 전문농업인을 배출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수학·과학 영재 142명 수료식 개최

광주교육과학연구원 영재교육원

광주교육과학연구원(원장 이영주)이 18일 교육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2018학년도 영재교육원 수료식을 가졌다.

광주교육과학연구원 영재교육원은 광주지역 수학·과학 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영재를 조기 발굴·육성하기 위해 영재교육진흥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운영해 왔다.

이번 수료자는 중1 과정이 64명, 중2 55명, 중3이 23명이다. 지금까지 총 615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조인호 기자

영재교육원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 수학·과학 분야의 탐구중심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광주시교육청 오승현 부교육감은 "영재학생들의 특성인 과제집착력을 통해 연구 활동에 집중력을 유지하길 바라며, 학문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를 배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훌륭한 과학인재로 키워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녀의 독서습관, 학부모의 독서교육으로

무안교육지원청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재철)은 지난 19일 자연나리숲속 유치원(사립) 학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독서교실'을 실시했다.

유치원 자녀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자녀와 함께하는 독서교실'은 관내 공·사립 유치원 학부모, 자녀 801 가족, 총 16회 운영했다. 바쁜 농어촌 학부모에게 독서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녀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알려주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한 자녀교실은 '좋은 그림책 고르기', '자녀와 함께 그림책 읽기', '그림책과 연계된 놀이 활동' 등으로 진행했다.



독서교실을 운영한 김은혜(자연나리숲속유치원) 원장은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책을 읽고, 책 놀이를 하면서 독서지도 및 자녀교육을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며 무안교육지원청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유아에게도 관심을 갖고 지원 해줘서 고맙다"는 소감을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광산 010-5604-6533	송하 010-8620-1925
중암 010-3365-6200	학운 010-4166-1810	임동 010-2656-4543	양산 010-2646-3205
광천 010-6612-8599	광천 010-6636-2775	오치 010-7532-3313	북구 010-4601-2080
금호 010-6636-2775	상무 010-5359-7406	동운 018-611-7751	용봉 010-4601-2080
상무 010-5359-7406	풍암 010-6634-5084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화정 010-8438-3819	봉선 010-9474-0212		
진월 010-2615-8374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회선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